

글쓰기와 책임기 교육분을 보며

대입능성시험의 실시와 국민학교 저학년 과정에서의 시험 폐지 방침 등이 알려지면서 요즘 어린 학생들 사이에 글쓰기와 책임기 교육 분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학생들'이 아니라 '엄마들' 사이에서 붐을 이루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 교육현장에서 글쓰기와 책임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듯하다. 자녀들을 피아노나 태권도 학원 대신 글짓기 교실에 보내는 학부모들이 부쩍 늘고 있고, 그에 따라 예전 같으면 겨우 명맥이나 유지하던 각종 글쓰기 학원들도 성업중이다. 일부에서는 기업형에 가깝도록 대규모로 운영되는 학

원들도 있다는 소식이다.

책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의 입장에선 어쨌든 반가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독서인구의 저변이 그만큼 넓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더 좋은 학교 성적을 내기 위해" "더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라는, 대단히 실리적인 목적에 글쓰기와 책임기의 의미가 종속돼 있어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교과서나 달달 외는 것보다야 훨씬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로 삼아야 할 부분은 다른 데 있다. 그것은, 이즈음의 글쓰기 및 책임기 교육 분이 사교육의 차원에만 국한해 있을 뿐이라는 점이다.

학교나 도서관 같은 공교육의 차원에선 그에 상응하는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말하자면, 글쓰기와 책임기 교육이 '일부 선각적인' 학부모들의 개인적 선택에만 내맡겨져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재고돼야 할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학원과 같은 사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의 질이란 문제는 오히려 부차적이다. 본질적인 것은, 학교나 도서관이, 우리 사회가 존중하는 가치나 덕목을 가르치고 익히게 하는 곳이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다. 학원에서 배우는 것과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이 입시제도나 성적평가 방법의 변화와 관계 없이 귀중하게 대접받아야 할 가치라면, 그것은 학교나 도서관 같은 공교육 기관에서 가르쳐야 할 일이다.

재미있는 책이야기

책을 읽을 때 우선적으로 우리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이른바 '본문'이다. 사람마다 제각각이겠지만 대개의 경우 책의 본문이야말로 그 책의 내용이라고들 여기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곧 그 책의 본문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문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어쨌든 사실이다.

그러나 책이 본문만으로 이뤄져 있는 것은 아니다. 본문보다는 덜 중요할지 모르지만, 경우에 따라서, 본문이 줄 수 없는 의미와 재미를 주는 부분들 또한 엄연히 존재한다. 책의 제목이 우선 그렇고, 한 두줄의 짧막한 헌사, 그리고 격식을 차려 쓴 서문이나 발문들이 또한 그렇다. 그밖에 목차나 색인이 또 있다.

혹자는 이들을 일러 '파라 텍스트'나 '결텍스트'라고도 하는데, 책에서 추가 되는 부분은 아닐지라도 나름대로 책의 재미를 돋우는 의미있는 텍스트인 것만은 사실이다. 특히, 이들 결텍스트에는 저자나 작가들 개인의 인간적 면모가 잘게 드러나 있어 책임기의 또다른 재미를 제공한다. 본문에서는 가능치 않은 개인적 감회의 서술이 여기서는 얼마든지 허용되기 때문이다.

서문을 예로 들면,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읽는 맛도 색다르

다. 가령, 지금부터 한 30여년 전에 나온 책의 서문에서, 이제는 학계의 중견연구자로 대접받는 이가 당시에는 스승의 원고정리를 도와준 '아무개 군'으로 지칭되고 있는 걸 발견할 때 우리는 슬며시 미소를 짓게 된다.

다음에 이같은 결텍스트 읽기의 재미를 서술한 짧은 글 한편을 소개한다. 시인이자 영문학자인 황동규 교수(서울대)의 「서문들」(1971)이란 글이다. 출전은 시론집 「사랑의 뿌리」(문학과학사, 1976).

이즈음 와서 책 앞머리의 지극히 귀중한 자리를 필요없이 낭비하는 서문들을 별 역겨움 없이 읽게 되었다. 근년에 와서는 많이 가셨지만, 얼마전만 해도 본문보다 더 큰 활자로 화려하게 찍은 서문을 볼 때마다 겸손한 저자의 마음씨에 감명을 받지 않은 바는 아니지만 본문을 읽어 보고 싶은 마음이 짝 가셔짐을 느끼고 당황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하기는 내용은 적당히 하고 장정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출판사도 있다 하니 어쩌면 저자나 그 저자의 책을 읽는 나만의 책임만은 아닐지도 모른다.

여하튼 나는 그 느낌을 내 결벽증 혹은 소심증 쪽으로 치부해 두고 있

었다. 그런데 이 증세를 고쳐 준 것이 존 벳즈먼이 R.S. 토머스의 처녀 시집에 붙인 서문이다. 1967년 봄, 영국의 값싼 자취방 구석 침대에 누워 90펜트는 고향 생각으로 차 있는 머리로 도서관에서 빌려온 토머스의 시집을 읽고 있었다. 그러다가 나는 침대에서 굴러 떨어질 뻔했다. 토머스의 시집이 나왔을 때 벳즈먼은 인기의 절정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시집 판매로 부유한 생활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서문 끄트머리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었다.

토머스가 나에게 글을 부탁한 이유는 자기 시집에 한 사람의 독자라도 더 보태는 데 도움이 되어 달라는 뜻이라. 그러나 나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 앞으로 내 시는 남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의 시는 남을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너무 혼란 것이 흠이지만 멋지게 넘어가는 서정주씨의 서문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리 읽어도 대강의 감정밖에는 알 수 없는 고은씨의 서문 혹은 발문도 즐거운 마음으로 읽게 되었다. 때로는 함석헌씨의 "아이—"로 끝나는 신바람나는 서문에서 감동을 받기도 했다. 최근 단재전집 첫머리에 붙인

이선근씨의 도학자연하는 글도 두 번이나 읽었다. 소심증의 해소라고 볼 수도 있고 마음의 무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굳이 후자라고 우기고 싶지는 않다.

서문이 눈에 거슬리지 않고 신간 서적을 편한 마음으로 펼치게 된 이즈음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이렇다. 며칠전 구입한 「현대 미국 시 앤솔로지 A Controversy of Poets」는 패리스 리어리와 로버트 켈리가 편찬한 책이다. 600페이지에 이르는 책 앞머리에는 위 두 사람이 쓴 반 페이지의 서문이 실려 있다. 그리고 그 글은 다음과 같은 말로 끝맺는다.

이 책에 수록된 모든 사람 모든 작품에 대해 편찬자들은 공정과 공평을 지켰다. 다만 두 사람에 대해서는 지키지 못했다.

두 편찬자의 작품을 먼저 읽을 수밖에. 아이—

출판저널

통권 제139호 / 1993년 11월 20일 발행

발행인 — 鄭鎮肅
 인쇄인 — 李壹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鄭蕙玉 崔兌源
 李聖洙 金重植 裴銀姬
 디자인 — 尹貞子
 사진 — 金弘鎮

임무부장 — 尹東鎬
 업무·광고 — 李養天 崔炳天
 金姬姬 金容一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주과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타이피아

출판저널 - 110-190 서울 중로구 사간
 동 105-2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權寧彬	琴章泰	金光秀	金文煥
金錫滿	金聖坤	金彥鍾	金榮漢
金仁會	金鍾元	金治洵	金泰俊
金泰賢	金泰亨	朴明淳	朴星來
朴世熙	潘星完	邊衡尹	徐淵景
宋相庸	申福龍	慎鍾夏	安秉永
安輝濤	梁文吉	吳光洙	柳一相
尹志寬	李康淑	李璟薰	李光周
李基相	李斗暎	李萬烈	李炳勳
李相日	李勝羽	李元馥	李重漢
李姬載	林燦燦	張必和	張會翼
鄭丙圭	鄭爽鍾	鄭雲暎	鄭晉錫
鄭鎮弘	曹南鉉	曹大鉉	崔鍾庫
韓相震	韓勝憲	許碩烈	洪廷善
黃鉉產			(가나다 순)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저로 11,000원(반년분) 또는 20,000원(1년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반년분 또는 1년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 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임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주과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싸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은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틀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